

축 사

자 승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오늘 사단법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겨레얼살리기 창립 제10주년 기념 한민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국내 학교 행사는 물론, 지구촌 곳곳을 정렬적으로 다니시며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신 한양원 이사장님께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과 국내외 겨레얼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대회에 참석하신 종교인과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라는 거센 파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어느 국가와 민족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거센 파도를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겨레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겨레얼을 지켜냄으로써 민족의 장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현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물질적 발달 못지않게 우수한 “겨레의 얼과 전통 문화”를 잘 지키고 살려야 할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우주 만물은 변화 속에 있으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그 민족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망각하고 변화의 바람과 허울에만 휩쓸린다면, 자랑스런 우리 역사와 빼어난 우리 문화를 저버리게 되는 애석한 일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레얼 살리기 운동의 의미는 매우 깊고 넓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외 겨레얼 지도자 여러분들이 참여한 오늘의 한민족대회가 날로 발전하여 상생과 평화를 구현하는 대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활기찬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25일